

작가와의 대화

이병희(갤러리 정미소 아트 디렉터)

이병희 :

하용주 작가의 이번 갤러리정미소에서의 <준비된 위장, Prepared Camouflage>(2008)는 <GASMASK0200>(공평아트센터, 2006), <GASMASK0200>(금호미술관, 2007)이어서 공식적으로는 세 번째 개인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전시 이전에 2008년 여름 아트사이트 원도우에서 작품 <소통의 바다>(2008)을 디스플레이한 것까지 포함시킬 수 있을 수도 있겠지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하작가님의 앞 선 두 번의 개인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 약간 질문에 부가 설명을 곁드리겠습니다.

하용주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 <GASMASK0200>(공평아트센터, 2006)은 작가의 독특한 화면 배색법이 두드러져 보이는 특색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작가분이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지만요, 그의 배채법이 매우 표현적이죠. 이 전시에서는 이러한 먹색의 바탕, 배채의 표현법 등이 두드러져 보였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목으로 개최한 2007년 금호미술관에서의 두 번째 개인전에서는 그런 먹색 바탕보다는, 단색조의 바탕에 다양한 인물군이 더 특색으로 드러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전시에서 같은 제목을 쓴 것은 어떤 이유이며, 그리고 한 편에서는 먹색의 배경을, 한편에서는 다양한 인물군을 강조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가요?

사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의도하는 것은, 처음 전시에서는 '가스마스크'라는 소재가 부각되었었는데, 이번 3회 개인전에서는 그 소재가 갖는 국한된 이미지를 탈피하고 보다 작업 세계가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더 듣고 싶은 것이지요.

우선 제가 본 느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에서는 아무래도 '가스마스크'라는 소재가 갖는 상징성이랄까 표현성이 화면 전체 배경의 효과와 더불어 특정 분위기를 갖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스마스크'의 어떤 무시무시함이랄까,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이미지, 즉 무적의 이미지가 느껴지는 것이지요. 마치 화면 전체를 잠식해버리고 있는 듯한, 먹색의 배경은 마치 세상이 초토화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이 전시에서의 메인 작업이었던, <91개의 가스마스크> 작품은 수많은 가스마스크들이 무시무시하게, 화면의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관객을 압도합니다.

마치 그 마스크들은 화염 혹은 연기와 같은 속에서 무적으로 살아남는 존재들처럼 보입니다.

반면, 금호미술관 개인전에서의 '가스마스크'는 배경이 다채로운 강한 원색들이라서 그런지, 오히려 그 역할이 좀 축소되어 보입니다. 게다가 가스마스크를 쓴 인물들이, 매우 다양해서 마치 어떤 개성의 존재들, 현대의 개별의 주체들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가령 흑인 여자, 테러범 같은 모습들도 있죠. 게다가 이 전시에서의 메인 작업이었던, 작품 <13월>(2007)은 가스마스크를 쓴 일군의 자전거를 탄 무리들이 화면 전면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바쁜 일상의 출근인들 같기도 하죠. 마치 중국이나 대만처럼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연상시키기도 하고요. 아마도 이 전시에서 강한 원색의 배경이랄까, 다양한 인물군이랄까 이런 것은 현대인, 바쁘고 한쪽으로만 달려 가야하는 일상 등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마치 이전 전시에서처럼 무적의 가스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매우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흠, 좀 사소한 질문입니다. <91개의 가스마스크>에서 91이란 숫자의 의미는? 그리고, 0200이란 숫자는요? ^^

하용주 :

우선, 1회, 2회 개인전의 전체 주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와 2회 전시 제목이 같은 이유는, 우선 1회 개인전시는 석사학위 청구전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스마스크'를 소재로 한 일련의 작업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오염지역에서나 독성 물질로부터 사람의 얼굴과 호흡을 보호하는 도구인 '가스마스크'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즉 가스마스크라는 것이 소통에 필요한 심리적 도구로 인식 시키는 전시였죠. 그리고 2회 개인전은 1회 개인전과 마찬가지로이었지만, 가스마스크의 이미지나 개념을 좀 더 정리하여 표현한 전시였습니다.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1,2회 전시는 작은 표현방법의 변화를 제외하고는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전시의 차별점으로 보이는, 1회에서는 먹색 배경을, 2회에서는 인물군을 강조한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먹색 배경은 제가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을 친숙하게 다루어왔습니다. 그래서 줄곧 다루어 왔던 먹을 제작업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에는 먹 채색기법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법인 '배채법'(한지의 뒷면에 작업을 하여 앞면으로 스며들어 표현되는 기법)에 의해서 표현되는 화면은, 보시다시피 먹의 느낌이 먹의 본래의 색을 한지를 통해 어느 정도 걸러지거나 약간은 중화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 표현은, 앞면에서 먹을 사용할 때보다 먹의 농담(먹의 진하기와 연하기)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배채법을 대학시절부터 즐겨 사용해왔습니다. 물론 지금의 작업과도 연관성이

있으며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인데요, 가령 다소 단순하거나 평면적인 화면에 공간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한 한 화면 안에서 여러 가지의 느낌과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채법의 표현성을 살리는 게 제 작업의 기본적인 표현방법입니다. 우선 저는 화면의 정면에서 묘사할 때의 정확한 묘사성과 같은 어떤 의도성이 배제되는 배채법으로, 한지 뒷면에서 앞면으로 배어나오면서 새로운 앞면의 어떤 배경을 만들게 합니다. 이렇게 어떤 우연성을 담고 표현된 앞면은 새로운 어떤 의도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배경을 두고 다시 화면 앞에서 먹으로 조형성을 갖고 제가 구도를 잡으며 작업합니다. 가령 군데 군데 철판으로 찍어서 판화 같은 느낌을 만들기도 하고 대형 붓으로 화면의 무게중심을 먹으로 잡아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먹의 배경이 형성됩니다. 즉, 먹만을 이용한 기본적인 바탕은 한지 뒤에서 계산되지 않는 표현방법과 한지 앞에서 조형성이나 구도를 계산한 표현방법의 만남으로 제작업만의 독창적 배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1회 개인전의 <91개의 가스마스크> 작품과 <Bomb0200>의 작업에 먹색의 배경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먹색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저는 획일화된 외적인 익명성과 폭탄이 떨어지는 잔인한 폭력성의 사회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2회 때 등장한 대항작업 자전거무리들은 <13월>이라는 제목의 작품인데 1회 때의 암울하고 비장한 움직임으로 보았다면 13월은 반대의 개념인 이상을 찾아 떠나는 무리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보다 암울한 상황일수도 있구요. 관람자의 해석의 차이로 보여 집니다. 1회의 어두운 먹색과 먹색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화려하고 단조로운 색감으로 감추고 있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2회의 인물상들이 침 접했을 때는 산뜻하고 강렬하며 위트마저 느껴질지 모르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우울한 주체들의 이미지이겠지요.

물론 이 전시에서 인물군을 강조한 것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제작업 가스마스크의 개념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심리적인 가스마스크를 쓰고 있다." 는 것이지요. 이 컨셉이 바로 1,2회 개인전의 핵심 키워드 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개개인의 익명성이나 폭력성이나 아이러니한 상황들로 표현되고 있구요. 이병희선생님께서서는 1회와 2회의 큰 차이점을 먹색의 배경의 강조와 채색으로 감춰진 작업으로 나눠었는데요. 방법적인 측면에서 1회 때는 먹의 배채로 만들어진 화면을 강조하고 싶었고 2회에서는 그런 먹의 배경 또한 전부 보여줄 필요성을 못 느껴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회때에는 다양한 공간감의 먹색의 배경 대부분을 단순한 색상의 채색으로 덮고 인물들에 강조한 것입니다.

'91'의 숫자와 '0200'의 숫자의 의미는요...

91개의 가스마스크 그리고 0200 이 갖는 의미는 일단 특별한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91개의 마스크나 100개의 마스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화면 안에 총 91개의 가스마스크가 있어서 91개의 가스마스크로 제목을 정했는데 대부분 제목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91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모두 획일화된 레디메이드의 가스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진실된 개개인의 개성은 보여지지 않지만 외적인 모습은 100개나 91개나 같은 의미 없는 개성이 존재하지 않는 숫자의 마스크를 착용한 군상들일 뿐인거죠. 91개의 가스마스크라는 제목은 어떻게 보면 관객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하는, 낚시 떡밥 정도 되겠네요 ..(웃음)

0200의 숫자가 1,2회 많은 작품의 제목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0200은 작가인 저에게만 의미가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게 의미 있는 0200의 해석은 말할순 없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것은 그냥 숫자일 뿐이겠지요. 먼 훗날의 제 작업에 그 숫자가 다시 등장해서 그 의미가 객관화 될 순 있겠지만 아직은 저만의 0200이길 바랍니다.

이병희 :

작가는 이번 갤러리정미소 전시 바로 이전에 인사동에 있는 아트사이드 윈도우전시를 하였습니다. 작품은 이번전시에도 출품된 <소통의 바다> 이지요. 그때가 여름이어서 그랬는지, 수영장 장면이지요. 전시장에서 보면 매우 어두운 먹색이 강조되는데, 바깥에서 보면, 푸른 배경 색 때문에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땠는지요? 이 작품에서 눈물을 흘리는 가스마스크를 쓴 인물이 돋보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령, 우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매일 아침마다 <아침마당> 이란 프로를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요. 그 프로에서 가끔 "웃음치료사"가 나옵니다. 중년, 노년의 부모님 세대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아침마당>은 우리 부모님 세대(여기서 세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 60대 후반 이상이라고 할까요.. 전쟁을 겪은 세대죠)는 현재 너무 우울합니다. 그들은 표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랄까, 주체적 결정이랄까, 개성이랄까, 심지어 어떤 문화랄까 하는 것도 모두 남의 얘기 같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같기만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웃음치료사"는 웃는 방법을, 웃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장면은, 굳은 표정에 웃음이란, 마치 울음과도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작품 <소통의 바다>에서 가스마스크를 쓰고 우는 인물은, 마치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용주 작가가 이야기하는 '소통'이란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양새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그리 평탄한 것이 아니지요. 삶의 여러 측면들을 반영하는 자국들, 그 굴곡들이 우리 얼굴에 어떤 자국을 남긴다면, 그것은 마치 내 얼굴은 아니지만 내 얼굴이 되어 있는 '마스크'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전시에서도 작가가 이야기했듯이, 그 마스크는 얼굴 자체인 것이지요.

저는 이 얼굴-마스크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부자연스러움, 억지스러움, 혹은 어색하고 어눌하고, 인위적으로 보이는 그 마스크의 표정이 우리 자신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표정 또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의 토대가 된다고 말이죠. 그 마스크란 얼굴은 아마도 생존과 더불어 형성된 얼굴이 바로 인간의 얼굴이란 것이겠지요. 이번 전시 영문 제목에서도, 작가는 "disguise"와 같은 용어가 아니라, 보다 전투적으

로 느껴지는 "camouflage"를 사용했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단지 '위장'이란 것이 가식으로 뭔가를 살짝 가리거나, 아닌척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밀착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 작품 중에서 <날것의 욕망>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용주 :

<소통의 바다> 작품에 대한 선생님의 이야기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심리적인 마스크'를 통한 새로운 표정은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자신이 인지를 못하는 순간에 말이죠. 우리가 짓는 표정의 진실성(혹은 가식성, 위장 등등)에 대해 가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심리적 도구 가스마스크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가스마스크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흔히들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면, 그건 이기적이거나 가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바로 마스크를 쓴 존재는 그런 긍정이나 부정의 선입견이나 가치 판단을 넘어선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혼자서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무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상 이미 어떤 공존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 마스크는 존재하는 것이지요. 마스크는 자연스러운 거죠. 쉽게 말하면, 혼자서 살아가지 않는 한 가스마스크는 늘 존재 합니다. 가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뿐이죠. 저도 그런 마스크 존재를 인정할 뿐 그뿐입니다.

이병희 :

다음으로, <소통의 바다>와 이번 전시의 <거대한 위장> 작업과 비교해보는 질문입니다. <소통의 바다> 작품의 경우는 앞의 1회와 2회 전시의 메인작업들과 구도가 비슷합니다. 배경에는 별로 원근이 없고, 그 속의 인물들은 반복 패턴적으로 표현됩니다. 반면에, 이번 갤러리정미소에서의 메인 작업인 <거대한 위장>은 비교적 복잡한 구성입니다. 가까이에서 작품을 보면 원근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다소 산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가시거리를 두고 보면, 화면의 깊은 원근이 잘 느껴집니다. <거대한 위장> 작품에서, 멀리 수평선 너머로 어두운 보라색의 하늘이 마치 먹구름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화면 앞면까지 이어져 오는 인물들은 흑/백의 슈트를 입은 일군의 무리들이 같이 어울려 춤을 추기도 하고, 군인들처럼 보이는 인물군이 화면 양쪽에 나란히 줄지어 있기도 하고, 곳곳에는 까만 양복을 입은 인물들이 제각각의 포즈로 널부러져 있습니다. 관객의 위치이기도 한 뒷 모습의 인물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까지 다가서 있지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무엇보다 휘황찬란한 배경이 눈에 띕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이기도 한 "준비된 위장"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화면 전체가 어지러운 무슨 소용돌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 또 함정과도 같은 소용돌이가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배경이 바로 이번 전시에서의 '위장'의 의미를 보다 확장적으로 의미심장하게 해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배경의 색들은 그것이 너무도 강해서 도저히 현 사회에서는 위장을 하게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너무도 '분명한' 위장이란 것이지요. 무엇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가령, 나방과 같은 곤충의 무늬와 같은 동물 보호색이나 무늬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보호색을 띤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주변색과 더불어 자신을 주변의 일부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사실 이 것은 로제 카이오아의 연구를 라캉이 인용하면서 응시를 설명한 부분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의 '위장'이란 것도,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그 화려함처럼 드러냄으로써의 '위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너무도 현란하고, 빨리 돌아가고 있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펙타클의 사회에서의 소용돌이 같은 무늬, 강한 색들의 위장 무늬는 바로 이런 현대 사회에 맞추어 자신을 그 일부로 드러내는 위장무늬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대화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맞추어 어떤 성찰성, 응시 등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진전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질문은 화면 구성에 대한 것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소통의 바다>와 <거대한 소통>의 화면 구성에서의 차이가 이렇듯 확연하게 드러나게 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혹은 제작하면서 에피소드는 없었는지요.

가령, 제가 느끼기에, 그 구성의 차이는, 하나는 평면적으로, 하나는 원근이 강조되어 매우 입체적으로 보기는 효과가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는 단일한 이미지로, 하나는 어떤 네러티브를 갖게 됩니다. 작업을 하면서, 이미지 작업과 네러티브 작업이 다를텐데요, 이 둘의 강조점, 차이점 등을 이야기해주세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미지 작업이라하면, 좀 패턴적인 것 같습니다. 일러스트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작업들에 비해서 네러티브 작업이라고 지칭한 것은 보다 회화적이라고 느껴지는 데요, 물론 저의 임의적인 이런 구분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작가의 용어로 차이를 비교 설명해주세요.

하용주 :

소통의 바다의 화면구성은 당시 아트사이드 윈도우에 2008년 8월에 전시될 예정이었기에 여러가지 이미지 표현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거대한 위장>에서처럼 적응하려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또 관조자 및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만, <소통의 바다>는 그 중에서, 적응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그 포커스가 맞춰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시원한 느낌의 바다는 작품이 전시되는 계절의 영향을 받은 것은 물론 이고 또한 어두운 먹색을 반전적으로 감추는 표현방법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위장> 역시 화려한 위장무늬의 배경의 이면에 어둡고 새로운 공간의 먹색이 존재하듯이 말이죠. 제작업들의 공통된 느낌은 관람자가 처음 볼 때는 강렬하고 화려하지만 계속 주시하다보면 그것들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보임과 동시에 이야기는 무척이나 우울해 집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울하거나 비극적 상황을 좋아합니다. <거대한 위장>의 경우 작업하는 내내 우울한 음악들을 들으며 작업을 했는데요, 밝은 느낌의 그런 것들보다 좀더 자신

을 돌아보게 한다거나 다수에서의 내가 아니라 구석진 공간의 나를 인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주체성을 찾는다고나 할까요. 화려하고 즐겁고 아름다움에 감춰진 나를 원래의 혼자인 나로 인식시켜주는 순간입니다. 익명성과는 상반되는 순간이죠. 개인적으로 작업의 동기 역시 그러한 상황들에서 발현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병희 :

네, 그래서인지, 작업들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거대하고, 스펙타클할지언정, 어떤 비판적 어조, 성찰적 어조가 물씬 배어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또한 하용주 작가의 독특한 화면 배색과 표현법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확인하니, 더욱 깊이 있는 관람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용주 :

제 작업 중에서, 이미지 작업과 네러티브작업의 강조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미지적인 것(1, 2회 개인전)과 이번 전시의 네러티브적인 것으로 구분하신 차이점은 물론 흥미롭습니다. 사실 분명 일러스트적으로 보여질 정도의 패턴화된 작업들이 1,2회 개인전에 많이 보여졌기 때문이죠. 이들 전시에서, 이미지와 패턴은 화면 구성상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반복하며 보여줍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방독면의 개념을 알리며 강조하기에 더없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패턴과 단순한 한 이미지의 존재와 마스크의 의미는 효과적으로 사용된 표현방법을 통해 발표되어져 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부터는 그 심리적 마스크의 개념을 넘어서, 상황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기능과 그것들을 존재하게 만드는 공간, 사회 혹은 맥락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거대한 위장>과 <91개의 가스마스크>를 비교하면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거대한 위장>의 경우 관람객은 작업을 시간을 들여서 찬찬히 들여다 보게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존재한 무수한 상황들을 모두 관찰 후 종합하여 작업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 <91개의 마스크>는 전체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나름의 해석들을 할 수있게 한 것입니다. <소통의 바다> 역시 그런 이미지적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표현하는데 경직되어 있거나 단순화시킨게 있는 것이지요. 그 반대의 경우라면, 강조와 네러티브의 이해를 통해 화면 안에서 결정되어 표현되어집니다.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패턴화시키는 작업이 작업을 할때, 좀 더 편하기도 하고, 다작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됩니다. 반면에 작품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네러티브를 갖는 작업을 한다는 것에는 많은 사유와 준비과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1,2회 개인전들의 작업들이 다작을 통해 주제를 강조시켰다면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의 수는 다양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요소들로만 갖춘 많은 공정들을 거친 작업들이고, 사실 많은 생각을 담고 있는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병희 :

앞서서 '위장'의 의미는 보다 확장적으로 작업을 해석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거대한 위장>에서 그 화려하고 복잡한 배경, 먹색의 배경, 그리고 소용돌이 같은 강한 색의 바탕으로부터, 그 원래의 바탕이 드러나게 놓아둔 백색 바탕의 움직이는 인물군들, 머리가 없이 배경이 되어가고 있는 인물(이 인물은 가스마스크를 안썼죠) 등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이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전시에서 부각되었던 소재인 가스마스크 없이도, 위장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요소에 보다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마치 1회 2회 개인전이 이번 전시에서는 변증법적으로 통합되고, 다른 새로운 차원을 열어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앞으로의 작업에서도 어떤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시장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어떤 특정 소재 없이도, 하용주씨가 사회에 대해서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랄까, 하용주씨가 표현하고자 하는 현대 주체, 그것은 제가 보기엔 이미 불능의, 소통 불가의, 무개성의 주체들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생존을 화두로 한 주체들로 보입니다만, 여하튼, 그 현대 주체의 소통, 즉 생존의 모습들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용주씨가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우울한 분위기를 내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우울하면서 매우 힘이 있어서 어떤 새로운 것의 의미심장한 조짐으로 보이는, 화면 전체에 깔리는 먹색의 무늬로 뒤덮여있는 그림들 전체 화면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물론 1회 개인전에서도 강조되었던 점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배체의 기법과 앞 화면 구성법으로 재형성하는 전체 화면의 표현성이 하용주씨 표현의 가장 큰 특징으로도 보이는데요, 이 표현은, 어떤 암울하기도 하고, 매우 격렬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줍니다. 가령 전쟁터처럼 폐허의 느낌을 주기도 하고, 뭔가 무너지는 느낌 같은 것을 줍니다. 반면에 그것이 강렬하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건설하기 위한 폭력적 전초단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징들과 더불어, 앞으로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앞으로의 작업이 보다 정서적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현대인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하용주 :

이전까지 존재 하던 마스크형태를 하고 있는 인물군과 함께 돋보이는 '적응하지 못한자'로 표현되어진 인물들은 선생님 말씀처럼 앞으로의 작업들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사회적 관점을 기준선으로 마스크를 쓴 자들이 평균이 되고 현실이며 상징적 잣대였지만 반대로 생각해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의 시각의 잣대로 본 공간 및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어떤 사회적 편견이랄까, 우리의 선입견들을 재고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제작업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정답은 없습니다. 제작업의 기본적인 목적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적

에 대해서도, 인간 주체가 사회적이든 그렇지 않든, 집단적이든 소수적이든, 개별적이든 그런 것에 어떤 정의를 내린다거나, 진실을 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작업은 여러가지 입장에서 바라본 인간들의 모습들을 계속 그려내는 것입니다.

다음이나 혹은 그 다음에 개인전을 할 때는 방독면 이라는 소재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소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이번 전시 역시 그런 화면 형식상의 과도기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앞으로도 제작업은 여러 가지 인간의 심리적 상황과 감정에 주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 입장에서 표현 되어 지겠지요. 하지만 의문점은 저 자신조차도 사회적 집단, 상징 질서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 사람이죠. 저도 어떤 특정 순간, 상황에 처한 사회적 존재로서 작업을 한 것이고, 표현에서도 그런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 시각이랄까, 저와 다른 입장, 다양한 입장이나 시각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작업, 그럴 수 있는 방법과 상황 등은 계속 작업해가면서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작가들에게 관건이 되겠지요. 어쩌면 제가 앞으로 작업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이 보다 다양한 경험이 필요로 하게 되는 시점이란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에, 현대인의 '어떤' 측면을 이야기 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그 '어떤'을 '그냥' 현대인들에 대한 '기록' 정도로 생각해야 할 듯 싶어요. 현대인들은 사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속한 자들로 구분을 짓고 그렇지 않은 자들 또한 존재하기에 저는 새로운 기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심리적 상황과 공간들이 등장을 하게 되겠지요.

이병희 :

네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도, 작가의 손에 의해서 그 '어떤'은 계속 드러나고, 관람되고, 성찰되고, 거듭날, 그 것이겠지요. 감사합니다.